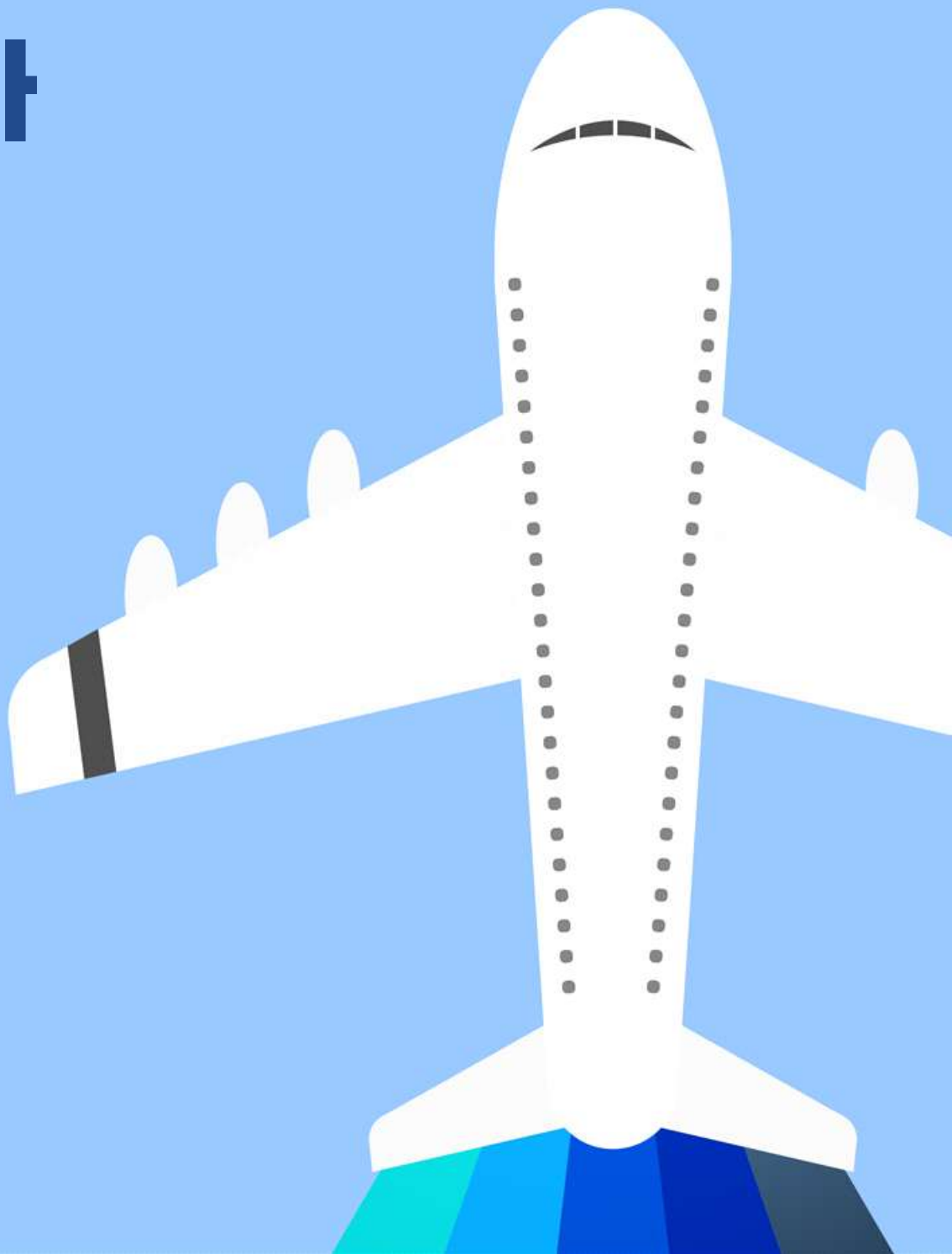


2024 해외출장 가이드

불가리아 소피아

Sofia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목 차

I. 국가 개요	01
II. 경제 및 교역 동향	02
III. 한국과의 교역·투자 동향	05
IV. 시장 특성 및 유의사항	08
V.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10
VI. 유관기관/편의시설/비상상황	18
VII. 무역관 안내	20

I. 국가 개요

1. 국가 개황

국명	불가리아(Bulgaria), The Republic of Bulgaria
국기	 (흰색 : 평화·순수 / 녹색 : 자연 / 빨간색 : 용맹·믿음)
위치	· 유럽 동남부, 발칸반도 남동부에 위치 · 루마니아, 그리스, 흑해, 튀르키예, 세르비아, 북마케도니아와 접경
면적	약 11만 Km ² (한반도의 1/2)
인구	6,447,710명 (2022년 기준)
수도	소피아(Sofia), 인구 120만명(유동인구 포함 190만 명 추산)
주요 도시	Sofia(120만명), Plovdiv(47만명), Varna(36만명), Burgas(29만명), Stara Zagora(21만명), Blagoevgrad(17만명), Pleven(15만), Veliko Tarnovo(14만명), Haskovo(15만명), Ruse(18만명)
건국일	· 1878년 3월 3일(오스만 제국으로부터 해방) · 오스만 제국으로 부터의 실제 독립일은 1908년 9월 22일이며, 이에 따라 불가리아는 3월 3일과 9월 22일이 모두 국경일임
기후	· 대륙성 기후로 사계절이 있으며, 연평균 기온은 섭씨 10.5도 · 중앙 발칸산맥을 경계로 남부 지역은 지중해성, 북쪽은 대륙성 기후 · 우리나라 기후와 대체로 유사(겨울: -5~5도, 여름: 26~30도)
민족*	불가리아인(84.8%), 튀르키예인(8.8%), 집시(4.9%), 기타(1.5%) / 2011년 기준
언어	불가리아어
종교*	불가리아 정교(76.0%), 이슬람교(10.0%), 무교(4.7%), 기타(9.3%) 등 / 2011년 기준
정치	· (정부형태) 의회 민주주의제(의원내각제) · (정부) 임시 정부 운영 - 2024년 6월 9일 조기 총선 실시 후 의회에서 정식 연립정부 구성 및 총리 선출 예정 · (대통령) Rumen Radev (2017년~2026년 / 임기 5년제, 연임, 외교·안보 담당) · (총리) Dimitar Glavchev (2024. 4월 재임 / 대통령 임명 임시 정부 총리) · (주요정당) GERB(1당), PP-DB(2당) (2023.4월~2024.4월 49대 의회)
기타	· (화폐 단위) 레바(Leva, BGN으로 표기함) · (환율) EUR 1 = BGN 1.95583 (고정 환율) · (시차) GMT+2 (한국보다 7시간 늦음. 써머타임 적용 시 6시간 차이) - 2024년 3월 31일 새벽 3시부터 2024년 10월 27일 오후 3시까지 써머타임

* 주 : 불가리아는 2011년 이후 '민족', '종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 자료 : KOTRA 국가정보, 불가리아 통계청 자료 종합

II. 경제 및 교역 동향

1. 경제 동향

□ 경제 환경

- 2023년 GDP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전년 대비 하락, 2024년 성장률은 반등 예상
 - 고물가 지속 및 실질 소득 감소로 GDP 성장률은 2022년 대비 2.1%p 감소, EU 기금 유입 증가와 국가 프로젝트 추진의 영향으로 2024년 성장률은 반등한 2.7% 예상

< 2019~2023 불가리아의 경제성장, 1인당 GDP, 실업률 등의 추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명목 GDP(십억 달러)	69	70	84	90	102
GDP 성장률(%)	4	-4	7.7	3.9	1.8
물가상승률(%)	2.5	1.2	2.8	13	8.6
실업률(%)	4.3	5.2	5.3	4.2	4.4

* 자료 : IMF (2024.5월 기준 WORLD ECONOMIC OUTLOOK에서 발췌)

□ 산업 구조

- 불가리아는 서비스업 위주의 산업 구조지만 농림어업과 제조업 비율도 증가 추세
 - 정부는 플로브디프, 루세, 바르나 등 주요 도시에 제조업 클러스터를 구축, 의약품, 자동차 부품, 화학용품 등 핵심 산업의 경제 기여도 증가

< 2018~2022년 불가리아 GDP 산업별 현황 >

(단위: 십억 BGN,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규모	비율
농림어업	3.7	3.9	3.9	3.8	4.2	4.0	6.0	4.9	7.3	5.0
제조업	24.6	25.9	26.1	25.1	26.3	25.3	29.0	23.9	43.0	29.5
서비스업	66.9	70.2	73.9	71.1	73.5	70.7	86.5	71.2	95.4	65.5
총계	95.3	100.0	104.0	100.0	104.0	100.0	121.5	100.0	145.7	100

* 자료 : 불가리아 통계청(2024.3월 기준, 생산 GDP 통계에 따른 계산)

2. 교역 동향

□ 對세계 교역 동향

- 2023년 불가리아의 교역 총량은 약 966억 달러, 무역수지는 52억 달러 적자
 - 교역 총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 높은 공산품 수입의존도로 무역수지는 적자 지속
 - EU 역내국과 교역이 활발하여 유럽의 경기 악화가 교역 감소에 영향
- * 유로존 지역 2023년 기준 실질 GDP 성장률 0.4%로 전년 3.4% 대비 3%p 감소

< 2019~2023 불가리아의 對 세계 교역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33,341	31,954	41,151	49,919	45,684
수입	37,663	35,055	46,203	57,593	50,899
교역량	71,004	67,009	87,354	107,512	96,583
수지	-4,322	-3,101	-5,052	-7,674	-5,215

* 자료 : Global Trade Atlas(2024. 3월 기준)

□ 국별 교역 동향

- EU 역내국과 튀르키예, 러시아 등 인근 국가 및 중국과 교역 비중이 높은 편
 - 2007년 EU 가입 이후 EU 역내국에 대한 수출입 비중이 증가
 - 지리·문화적(약 500년간 오스만 제국의 지배)으로 인접한 튀르키예, 원유 등 천연 자원 수입국인 러시아, 전자제품류, 보일러·발전기류 등은 중국으로부터 수입

< 2021~2023 불가리아의 국가별 수출입 순위 및 비중 >

(단위: %)

순위	2021		2022		2023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1	독일(15.0)	독일(12.3)	독일(14.0)	러시아(10.9)	독일(13.3)	독일(12.1)
2	루마니아(10.1)	튀르키예(7.7)	루마니아(10.0)	독일(10.8)	루마니아(9)	튀르키예(8.6)
3	이탈리아(7.6)	러시아(7.6)	이탈리아(7.5)	튀르키예(8.4)	이탈리아(7)	러시아(6.9)
4	그리스(6.6)	루마니아(7.6)	그리스(6.5)	루마니아(6.9)	튀르키예(6)	이탈리아(6.5)
5	튀르키예(6.2)	이탈리아(6.6)	튀르키예(5.9)	이탈리아(6.0)	그리스(5.4)	루마니아(6.4)

6	프랑스(3.7)	중국(5.4)	프랑스(3.3)	그리스(6.0)	프랑스(3.2)	중국(5.7)
7	벨기에(3.3)	그리스(5.3)	스페인(2.6)	중국(5.8)	벨기에(3)	그리스(4.3)
8	중국(3.2)	네덜란드(4.3)	네덜란드(2.6)	네덜란드(4.2)	스페인(2.6)	네덜란드(4)
9	스페인(2.7)	헝가리(3.7)	벨기에(2.5)	폴란드(3.3)	미국(2.5)	폴란드(3.8)
10	폴란드(2.5)	폴란드(3.6)	세르비아(2.4)	헝가리(3.1)	중국(2.4)	헝가리(3.4)
한국	30위(0.61)	38위(0.36)	46위(0.3)	37위(0.4)	33위(0.5)	36위(0.4)
일본	63위(0.16)	30위(0.52)	64위(0.2)	34위(0.4)	63위(0.2)	35위(0.4)
중국	8위(3.2)	6위(5.4)	17위(1.6)	7위(5.8)	10위(2.4)	6위(5.7)

* 자료 : Global Trade Atlas(2024. 3월 기준)

□ 품목별 교역 동향

- (수출)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보일러/기계류, 구리제품, 사료 등을 주로 수출
 - 제조업의 경우 서유럽의 하도급을 받아 위탁가공 후 수출하고 있으며, 동광업 발달로 인한 구리제품류, 농·축산업용 사료, 차량용 부품(센서, 하네스) 등 수출
- (수입) 전자기기, 광물성 연료, 보일러/기계류, 일반차량, 광 슬레그 등 주로 수입
 - 전자기기, 차량, 생활용품 등 완제품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흑해의 정유 시설 운영을 위한 원유, 중간재 가공을 위한 부품과 기계류 수입이 많은 편

< 불가리아의 품목별 수출입 순위 및 금액(HS 2단위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수출				수입			
	HS 코드	품목	2022	2023	HS 코드	품목	2022	2023
1	85	전자기기	4,640	5,123	85	전자기기	6,192	6,147
2	27	광물성연료	5,698	3,729	27	광물성연료	9,692	5,826
3	84	보일러/기계류	3,707	3,690	84	보일러/기계류	5,065	4,972
4	74	구리제품	4,244	3,425	87	일반차량	3,652	3,910
5	10	사료	1,991	2,265	26	광·슬레그	2,603	2,232
6	87	차량	1,594	1,589	39	플라스틱제품	2,473	2,164
7	39	플라스틱제품	1,590	1,359	30	의약품	1,926	2,061
8	30	의약품	1,192	1,285	72	철강	2,324	1,763
9	26	광·슬레그	947	1,144	74	구리제품	1,251	1,235
10	90	광학제품	999	1,076	73	철강제품	1,035	1,037

* 자료 : Global Trade Atlas(2024. 3월 기준)

Ⅲ. 한국과의 교역·투자 동향

1. 교역

□ 한국-불가리아 교역 동향

- 2023년 양국 간 교역액은 약 5억 5,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9% 증가 기록
 - 수출 1억 9,600만 달러(전년 대비 17.7% 증가)로 92위이며, 수입 3억 5,800만 달러(전년 대비 15.4% 증가)로 71위, 총교역액 기준 81위의 교역국
 - 수출은 2022년까지 보합세 유지 후 2023년부터 증가, 수입은 증가 추세 지속

< 2018~2023 한국-불가리아 교역 동향 >

(단위: 백만 달러)

분류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출	174	166	157	167	167	196
수입	179	255	209	436	311	358
교역량	353	421	366	603	478	554
교역수지	-5	-89	-52	-269	-144	-162

* 자료 : 무역협회 수출 통계 (2024. 4월 기준)

□ 품목별 교역 동향

- (수출) 합성수지, 승용차, 전기차, 폴리에스터 섬유, 화장품 등이 주요 수출품
 - 페트병의 주 제조 원료인 폴리에틸렌 합성수지가 2023년 수출 1위 품목
- (수입) 사료, 동조가공품, 식물 의류, 나프타, 곡류 등이 주요 수입 품목
 - 동물 사료용 곡류(옥수수 등)가 2023년 1위이며 전년 대비 159% 증가해 1억 2천만 달러 기록

< 2022~2023 한국-불가리아 품목별 교역 동향(MTI 4단위 기준) >

(단위: 백만 달러)

순위	한국의 對 불가리아 수출				한국의 對 불가리아 수입			
	MTI 코드	품목	2022	2023	MTI 코드	품목	2022	2023
1	2140	합성수지	41	47	0136	사료	46	119
2	7411	승용차	19	28	6222	동조가공품	41	34

3	7414	전기자동차	3	12	4412	직물제의류	28	32
4	4111	폴리에스테르섬유	10	8	1334	나프타	0	19
5	2273	화장품	6	8	0111	곡류	48	18
6	3203	타이어	7	7	1190	기타금속광물	21	15
7	7419	기타자동차	5	6	8425	자동화기기	9	13
8	8124	TV카메라및수상기	6	6	4411	편직제의류	11	11
9	6134	아연도강판	1	5	2262	의약품	9	8
10	0159	음료	3	4	7512	밸브	8	7

* 자료 : 무역협회 수출 통계 (2024. 4월 기준)

2. 투자

□ 한국의 對 불가리아 투자 동향

- 2023년 기준 한국의 對 불가리아 누적 투자액은 약 2억 3,254만 달러
 - 한국의 對 불가리아 투자는 태양광 발전 등을 포함한 에너지 분야에 집중되어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투자가 전체 누적 투자액의 63.5%를 차지
 - 한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합작 투자한 태양광발전소가 운영 중
 - 2023년 자동차 부품기업이 지분 투자를 통해 신규 진출, 투자액 백만 달러 증가

< 한국의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 현황 >

(단위: 천 달러)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총 계
제조업	19,292	-	-	76	-	19,368
숙박·음식업	52,204	-	-	-	-	52,204
도매·소매업	2,469	-	-	1	-	2,470
부동산업	1,500	-	-	-	-	1,500
건설업	3	-	-	-	-	3
전기·가스·증기 공급업	141,792	4,029	-	1,966	-	147,787
정보통신업	8,089	-	-	-	-	8,08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업	-	-	-	-	1,000	1,000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	125	-	-	-	-	125
합계	225,474	4,029	0	2,043	1,000	232,546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2024. 4월 기준)

□ 불가리아의 對 한국 투자 동향

- 2024년 1분기 기준, 불가리아의 對 한국 누적 투자액은 144만 달러
 - 불가리아의 투자는 제조업(전기·전자)에 집중되어 총 누적 투자액의 60.3%를 차지
 - 주요 진출기업으로는 카오스그룹(컴퓨터그래픽), 피앤에이치(태양광) 등이 있음

< 불가리아의 對 한국 직접투자 현황 >

(단위: 천 달러)

분류	~2019	2020	2021	2022	2023	총계
제조업(전기·전자)	870	-	-	-	-	870
도·소매(유통)	191	-	-	82	-	273
숙박·음식점	154	-	-	-	-	154
정보통신	95	-	-	-	-	95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50	-	-	-	-	50
합계	1,360	-	-	82	-	1,442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외국인 투자 통계 (2024. 4월 기준)

□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 사례

- (성공 사례) 2010~11년 기간, 한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합작투자로 42MW의 태양광 발전소를 불가리아에 건설(총투자비 1억 5400만 유로 규모)
 - 진출 시 프로젝트 비용을 국책은행 융자로 조달, 2017년 현지은행에 리파이낸싱을 진행하고 2022년 현지 출자법인의 유상감자를 통해 초기 투자비 전액 회수 완료
- (실패 사례) 2018년 글로벌 신발 브랜드를 주문 생산하는 한국기업이 불가리아 내 유럽 수출용 신발 생산 공장 투자 진출을 검토
 - 하지만, 동 기업은 현지 노동력의 서유럽 유출 등으로 공장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투자 진출을 포기

IV. 시장 특성 및 유의사항

1. 시장 특성

□ 발칸 반도 중앙에 있는 지리적 이점, 서유럽 진출 교두보

- EU 회원국으로 발칸반도 중앙에 위치, 서유럽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남
 - 유로화 도입과 완전한 쉥겐 가입* 등 EU 융합 강화를 목표하고 있으며 지리적 이점을 활용, EU 역내국 및 인근 동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이용 가능
- * 2024년 3월 31일부터 항공과 해상을 통해서는 여권검사 없이 수속이 가능한 '조건부 쉥겐' 조약 가입국
- 개인 소득세와 기업 법인세율이 10%로 일정해 EU 회원국 중 낮은 편, 현지의 낮은 임금을 활용한 노동 집약적 제조업 투자 진출에 상대적으로 유리
- * 현지 평균 임금은 약 1,000유로로 헝가리(1,450유로), 폴란드(1,850유로)와 비교해도 낮은 편

□ 규모는 작지만,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동유럽의 틈새시장

- 인구 약 645만 명, 1인당 국민 소득 약 1만 6천 달러 수준의 작은 시장
 - 시장 규모가 작아 바이어가 느끼는 재고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이에 따라 한국기업의 최소 주문 수량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편
 - 작은 시장 규모로 대기업의 시장 관심이 낮은 편이며,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
- * 불가리아 수출 중소기업(개사) : ('19)824 → ('20)845 → ('21)865 → ('22)951 → ('23)1,060

2. 유의사항

□ 바이어 교신

이메일 교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Wi-fi 등 통신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 편으로 바이어와의 유선 통신(이메일, 전화 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편임 · 다만 통신 오류로 이메일이나 대용량 자료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바이어에게 이메일 수신 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이 좋음
휴가 시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활절 연휴(4월말~5월초), 5월초 연휴(5.1 노동절, 5.6 성 게오르기의 날), 성탄절 연휴(12월말~1월초)는 바이어와의 교신이 어려운 편임 · 7~8월은 대부분 기업이 1달 정도의 하계휴가에 들어가므로 사전에 휴가 기간을 고려하여 바이어와 교신을 진행하는 것이 좋음

□ 바이어 상담

상담 전 현지 시장동향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전 품목에 대한 현지 시장 규모, 경쟁 현황 등을 사전 파악 · 불가리아 바이어는 서유럽에서 소량 수입 공급하는 거래에 익숙하므로 바이어의 제품 비교 척도는 서유럽 제품일 가능성이 높음
약속 납발 금지, 사후관리 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중 지키기 어려운 약속을 납발(무료 샘플 제공, 즉시 추가자료 전달 등)하는 것은 우리기업에 대한 신뢰도를 깎아 내리는 일임 · 상담내용에 대해 철저히 기록/사후 관리하며, 후속 조치 내용은 약속 기한 내 이행, 이행이 늦어질 경우 바이어에게 사유를 통보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소득수준이 낮다고 상대방을 경시할 수 있다는 편견을 버려야함 · 불가리아인은 키릴문자를 발명하고, 선사시대 유적을 다수 보유하는 등 문화적 자긍심이 매우 높은 편임
불가리아의 독특한 제스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 '다'(DA/예)라고 표현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 · (부정) '네'(NE/아니오)라고 표현하며 고개를 아래위로 흔들 · 제스처보다는 음성을 들어야하며, 확실치 않을 경우 의사를 재확인

□ 바이어 거래 협상

가격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주요 항구는(Varna)이며 통상적으로 바르나 항구까지의 운송 조건에 의한 가격을 제시해야함(예> CIF Varna, FOB Varna 등) · 불가리아의 화폐인 레바(Leva:BGN)는 유로화에 환율이 고정되어 있어 (EUR 1 = BGN 1.95583) 바이어들은 환 위험 회피가 가능한 유로화로 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선호함
최소 주문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바이어는 서유럽에서 소량 수입 공급하는 거래 관행에 익숙하여 한국기업의 최소주문량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거래 초기에는 현지 시장 규모(인구) 및 구매력(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소 주문량을 신중적으로 운영하며, 점차 주문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결제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 바이어 대부분이 T/T 결제를 선호하며, 통상적으로 선금 30%, 선적 후(선적서류 사본 송부 후) 잔액 70%를 지급 · 결제금액이 큰 경우 신용장(L/C) 거래가 이뤄지기도 하나 과거 공산정권 시절 관료주의 등의 영향으로 현지은행의 신용장 절차가 매우 느리고 불편하며, 수수료 역시 매우 비싼 편임

V. 현지 체류 시 참고사항

1. 입국

□ 입국 비자

- 대한민국은 1994년 8월 불가리아와 단기사증면제협정(외교관, 관용, 일반)을 체결하여, 단기 출장 및 관광객(90일 이내 체류)은 비자가 면제됨. 단, 2024년 3월 31일부터 쉥겐 조약에 부분적으로 가입하면서 타 쉥겐 국에서 최근 180일 이내에 90일 이상 체류한 경우, 무비자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에 유의

□ 면세 반입 가능 물품

주류	알코올 함량 22% 이상 1리터, 함량 22% 미만 2리터, 논 스파클링 와인 4리터 등
담배	항공 입국 시 200개비
현금	10,000유로 이상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통화
기타제품	커피, 차(茶)류, 향수, 완구류, 전자기기의 경우 항공 입국 시 430 유로 이하면세

□ 통관 시 주의할 점

- 견본을 지참하는 경우 ATA Carnet 증명서를 소지
 - 과거 무역사절단 등으로 불가리아를 방문하는 우리 기업이 ATA Carnet을 지참하지 않은 상태로 견본을 다량 지참하여 입국 시 문제가 발생
 - ATA Carnet 지참이 어려우면 인보이스라도 지참하는 것이 권장되나, 이 경우 입국 시 적발되면 관세와 부가세(20%)를 물어야함
- 불가리아는 세관 검사에서 미신고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이 매우 높은 편으로 세관원의 질문 및 검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권장

□ 기타사항

- 입국 전 한국의 계절을 감안하여 활동에 용이한 복장으로 준비
 - 불가리아는 한국과 같이 4계절이 있으며 계절별 기온 역시 한국과 유사
- 공항 내 환전소가 있으나 불리한 환율이 적용되므로 소액 환전을 권장
- 도시권에서는 카드 결제도 대중적, 일반적으로 '컨택 리스' 카드를 사용

2. 현지 이동

□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 소피아 공항(터미널2) 도착 후, 오른쪽으로 걸어가면 ‘소피아 공항(Sofia Airport, 4호선) 지하철역이 있음. 터미널 1에서 2로 이동은 셔틀버스를 이용
- 지하철로 이동할 경우, ‘소피아 공항’ 역에서 전철 탑승, ‘세르디카(Serdika)역’에서 하차하면 바로 시내 중심부로 이동할 수 있음. 역사 내 발권기(영어 지원)에서 표를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 결제가 가능함. 문제가 있으면, 입구 쪽 역무원에게 문의
- 택시로 이동할 경우, 공항 앞 택시 전용 대기장이 있음. OK 택시와 Yellow 택시가 대중적이며 미터기를 항상 켜고 달리는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정행위가 적은 편

<지하철 및 택시>



□ 대중교통

○ 지하철



- 불가리아 수도인 소피아에 4개 노선의 지하철이 운행 중
- 주요 환승역은 소피아 도심 내 '세르디카'역임
- 요금: 1.60레바(약 1,100원)
- 운행시간: 05:30~23:30

○ 버스



- 전동버스와 일반버스 2종류로 버스표는 거리의 대중교통 매표소에서 구입 가능하며, 탑승 후 기사에서 바로 살 수도 있음
- 승차 후 차내 설치된 펀치 모양의 개찰기로 수동 개찰해야하며, 개찰하지 않은 경우 검표원 불시 검사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외국인은 자주 불시 검사 대상이 되므로 주의 필요 *
- 요금: 1.60레바(약 1,100원)
- 운행시간: 05:00~23:00

○ 트램(전차)



- 시내 대부분의 지역을 연결하며, 승차 전 정류장 매표소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운전석에서 구입
- 승차 후 차내 설치된 펀치 모양의 개찰기로 수동 개찰해야하며, 개찰하지 않은 경우 검표원 불시 검사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다른 대중교통 대비, 트램에서 외국인 대상 범죄가 자주 발생하여 이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이용 시에는 주의 필요
- 요금: 1.60레바(약 1,100원)
- 운행시간: 05:30~23:00

○ 택시



- 요금 자유화로 택시 회사마다 요금이 다르므로 승차 시 유리창에 적혀 있는 요금 체계 확인 필요
- 기본요금은 택시 유리창에 부착되어있는 요금표의 가장 윗줄에 표시되어 있으며, 소피아는 km당 **보통 1.3레바(야간 할증은 1.6레바)**
- 관광지 등에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사설 택시가 많은 편으로 가급적 현지에서 규모가 있는 '**OK 택시**' 또는 '**옐로우(Yellow) 택시**' 사용 권장
- OK(9732121), YELLOW(91119) 택시 마크와 번호 부착 확인 요망(사설택시의 대형 택시회사 로고 도용 사례 다수)
- 탑승 전 소요 시간 및 요금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Taxi me와 Yellow 택시등이 있으므로 택시 이용 시 동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 카드번호를 미리 입력할 경우 하차후 자동 결제도 가능함**

3. 환전

□ 화폐

- 불가리아의 화폐 단위는 레바(Leva)이며 지폐는 100, 50, 20, 10, 5레바가, 동전은 2, 1레바 및 50, 10, 20, 5, 2, 1 스토틴키(Stotinki)가 있음
 - '100 스토틴키 = 1레프(단수는 '레프', 복수는 '레바')이며 BGN으로 표현

□ 환율

- 불가리아는 1997년부터 고정환율제도를 운영, 레바 환율을 유로화에 고정
 - 레바/유로 환율(고정환율) : EUR 1 = BGN 1.95583
 - 레바/달러 환율 확인 : 유니크레딧 볼뱅크(<https://www.unicreditbulbank.bg/en/>)

□ 환전

- 환전은 은행뿐만 아니라 시내 일반 환전소에서도 가능하며, 환전 시 여권 등 신분증을 요구하기도 함
- 민간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경우 환전증명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적용 환율 및 수수료 확인 후 이상이 없을 시 서명해야함
 - 간혹 환전 증명서의 환율 및 수수료가 실제 적용 환율과 다른 경우 존재
- 또한, 거리에서 외국인에게 접근하여 좋은 환율로 환전을 시도하는 개인 환전자의 경우, 위조지폐나 신문지 조각 등을 이용한 환전 사기일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상대의 환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권장함
 - 소액 환전의 경우, 투숙 호텔에서 환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편리함

4. 물가 및 치안상황

□ 물가

- 대부분의 식사는 20유로 이내에서 먹을 수 있음. 한식당의 경우 찜개류가 13유로 내외이며, 소주 등 주류는 가격이 높은 편임

< 불가리아 물가 정보표(2024년 기준) >

연번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세트	10.1
2	식품	비빔밥	1인분	13
3	식품	김치찌개	1인분	13
4	식품	라면(신라면)	1봉지	2.5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3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0.6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0.9
8	의료	파라세타몰 (타이레놀류)	12정	2.5
9	교통	시내버스	기본요금	0.9
10	교통	지하철	기본요금	0.9
11	교통	택시	시내-공항(편도)	8.5
12	기호	담배(말보로라이트)	1갑	3.5
13	기호	소주(한식당 판매 가격)	360ml	12
14	기타	이발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15
15	기타	최저임금(월 급여)	법정최저	533

* 자료 : KOTRA 국가정보

□ 치안 상황

- 외국인 대상 폭력 사건은 거의 발생하지 않음. 다만, 시내 또는 대중교통 등에서 소매치기가 종종 발생하므로 항상 소지품에 대한 주의가 필요
 - 귀중품, 여권 등은 호텔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내 이동 중에는 가급적 단체로 행동하는 것을 권장함
- 시내 곳곳에서 집시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이미지와는 달리 해를 끼치는 경우는 적은 편이
 - 소매치기나 폭행 등의 사고는 잦지 않으나 너무 늦은 밤에 공원이나 집시 집성촌 등은 함부로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 단체로 움직이는 것을 추천

5. 기타 참고사항

□ 전기 규격

- 불가리아는 220V/50Hz의 전기가 공급되며, 콘센트 역시 원형 2핀이므로 한국산 전자기기를 휴대하는 경우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음
 - 단, 한국제품은 220V/60Hz로 불가리아에서 장기 사용 시 Hz 차이로 인해 고장이 날 가능성도 존재, 고가 제품은 ‘주파수 변환기’ 사용을 권장

□ 봉사료

- 서유럽과 같은 봉사료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추세로 호텔의 포터, 청소부 등에게 2레바(1유로) 정도의 봉사료를 주는 것이 좋음
 - 식당에서는 총금액의 10%가량의 봉사료를 서빙을 담당했던 웨이터에게 지급하며, 아침이나 점심에는 봉사료를 지급하지 않기도 함
- 현지 관행 상 택시는 1레바 미만의 동전을 거슬러 주지 않으며, 택시 이용 시 1레바 미만 잔돈이 발생하는 경우 그냥 하차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기타 문화 관습

- 식사 시에는 먼저 독주(‘라키아’라는 40도 짜리 과일주)와 속스카 샐러드를 먹으며, 이후 메인 메뉴를 먹는 것이 일반적임
- 한국과 달리, 건배를 할 때 상대의 눈을 응시하며 잔을 부딪치는 것이 예의. 시선을 피하는 것은 자칫 상대를 무시한다는 뉘앙스로 비칠 수 있음
-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것은 긍정(예),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이는 경우 부정(아니오)의 제스처로 사용되는 관습이 아직 남아있음
 - 제스처보다는 음성을 들어야 하며, 확실치 않을 경우 의사를 재확인해야 함

□ 집시

- 소피아 시내 일부 집시 밀집 지역은 되도록 가지 않는 것을 권장
 - 소피아 시내 서부의 ‘Lyulin 8~10’ 지역과 동부의 ‘Druzhba’, 북부의 ‘Orlandovtsi’ 지역은 집시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범죄와 마약 사고가 일어나므로 숙소 선정에 참고하고 가능하면 통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6. 주요 관광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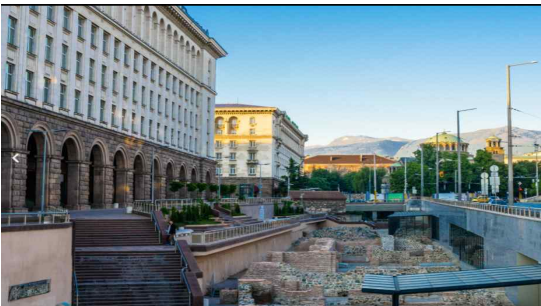
□ 소피아 시내 관광

○ 알렉산드르 네프스키 성당(Aleksandar Nevski Cathedral)



발칸반도 최대의 성당으로, 불가리아의 독립을 적극 지원한 러시아 알렉산더 황제와 희생된 그의 병사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졌다. 지하에는 고대 및 중세시대의 불가리아 유물과 성화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성당 신부의 유골들이 안치되어 있다. 1960년 러시아에서 기증한 20kg의 금으로 돔이 도포되어 있다.

○ 세르디카 유적(The remains of Ancient Serdika)



고대 도시인 세르디카(Serdica)의 유적으로 2010~12년 지하철 공사 중 발견됐다. 초기 기독교회, 대욕탕 등 9,000m²에 달하는 고대 도시가 소피아 아래 묻혀있는 것이 밝혀졌으며, 3세기 로마인이 지은 동문, 성벽 등을 포함 일부 유적이 일반인에게 공개되어있다.

○ 성 게오르기 교회(Church St. George Rotunda)



쉐라톤 호텔의 정원에 있는 소피아의 가장 오래된 건축물 중 하나로 3~4세기경 이교도 사원으로 건축된 것으로 추측되며 로마 시대에 교회로 사용되다가 오스만 지배 시에는 회교사원으로 사용되었다.

○ 기타 시내 관광

성 네델라 성당(St. Nedelya Church)	국립문화궁전 (National Palace of Culture)
성 페트카 지하교회(St. Petka Samardzhiiska Church)	소피아 성당(St. Sofia Church)
소피아 여신상(St. Sofia Statue)	성 니콜라이 러시아 교회(Russian Church)
소피아 법원(Sofia Court House)	대통령궁(President Palace)

□ 소피아 시외 관광

○ 릴라 수도원(Rila Monastery)



발칸 반도에 있어서 정교 수도원의 총 본산으로 10 세기에 최초 건축되었으나 현재 모습은 19세기 중 반 보수 및 개축된 모습이다. 정교한 건축술, 벽화, 성화, 고문서, 나무 십자가로 유명하다. 불가리아 내 9개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 중의 하나이다.

※ 소요시간 : 소피아에서 약 1시간 반 거리

○ 플로브디프(Plovdiv)



불가리아 제2의 도시로서 로마 시대의 원형극장과 구 도시(old Town)가 보존되어 있다. 원형극장은 현재까지도 콘서트나 다른 행사에 쓰이곤 하며, 5,000 ~7,000명까지 들어갈 수 있다.

※ 소요시간 : 소피아에서 약 2시간 거리

○ 벨리코 터르노보(Veliko Tarnovo)



소피아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양트라 강과 접해 있는 도시로 제2차 불가리아 제국의 수도였다. 과거에는 '투르노보'라고 불렸으나 그 역사적 의미를 더하기 위해 1965년 도시 이름 앞에 '벨리코(큰, great)'라는 형용사를 붙여 오늘날 '벨리코 터르노보'라 불리게 되었다.

※ 소요시간 : 소피아에서 약 2시간 반 거리

VI. 유관기관/편의시설/비상상황

1. 유관기관

<p>주불가리아 대한민국 대사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시간(월~금) : 9:00~12:30, 13:30~17:30 (영사민원실 17:00) · 대표메일 : korean-embassy@mofa.go.kr · 대표전화 : +359-2-971-2181 / 업무 시간 중 · 비상전화 : +359-887-503-270 / 긴급 상황발생 시 · 주소 : Srebarna Street 2V, Mobi Art Building, Floor 4, Sofia
<p>불가리아 한인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전화 : +359-886-631-205 (한인회장) · 이메일 : koreans.bulgaria@gmail.com · 홈페이지 : http://bulgaria.korean.net

2. 편의시설

<p>윤식당 (Restaurant Yu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359-2-963-0365 · 주소 : 34 Elemag Street, Izgrev, Sofia ·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yun.koreanrest/ · 영업시간 : 11:30~22:00 · 메뉴 : 비빔밥, 순두부찌개, 부대찌개 등 한식 위주
<p>코리아 식당 (Korea Restaura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359-899-912-404 · 주소 : street "prof. Georgi Zlatarski "5 Kv.vitosha bl.9 ·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1004sofia/menu · 영업시간 : 11:30~22:00 (일요일 휴무) · 메뉴 : 김치찌개, 비빔밥, 불고기전골 등 한식 위주
<p>컵앤롤 센터 (Cup&Roll Center)</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359-888-414-608 · 주소 : Pedestrian subway Gallery NDK, 1142 Sofia · 홈페이지 : https://www.facebook.com/cupnrollcenter/ · 영업시간 : 11:00~22:00 · 메뉴 : 김밥, 라면, 덮밥 등 분식 위주
<p>비원식당 (Bi-w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번호 : +359-878-865-522 · 주소 : Geo Milev, ul. "Liditse" 1, 1113 Sofia · 영업시간 : 10:30~22:00 · 메뉴 : 비빔밥, 라면 등 (배달만 가능)

3. 비상상황

□ 긴급전화

소피아 경찰서 (01 Regional Police Sof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전화 : +359-2-872-2574 · 비상전화 : 112 / 긴급상황 발생 시 · 주소 : Boulevard "Shipchenski Prohod" 8, 1113 Geo Milev, Sofia
Tokuda 병원 (영어구사 가능, 24시간 응급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전화 : +359-2-403-4000 · 비상전화 : +359-2-404-4112 / 긴급상황 발생 시 · 홈페이지 : https://acibademcityclinic.bg/tokuda · 주소 : bul. "nikola y. vaptzarov" 516, 1407 sofia
기타 응급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응급 전화(범죄, 의료, 화재 등) : 112 · 범죄 신고 : 166 · 의료 신고(부상 등) : 150 · 화재 신고 : 160

□ 위급상황 시 유용한 표현

뜻	불가리아어	읽는 법
도와주세요!!	Помогнете ми!	뽀모그네떼 미
급한 상황입니다!!	Спешна помощ	스뽀스나 뽀모쉬뜨
경찰을 불러 주세요!!	Обадете се на полицията	오바데떼 세 나 폴리찌야따
(장소)으로 가주세요!!	За (장소), Моля	자 (장소), 몰랴 (한국대사관) 꼬레이스코 뽀솔스트보 (경찰서) 뽀리찌이스코 우쁘라블레니에 (외국인 병원) 불니짜 자 추즈덴찌 (응급실) 스뽀시나 불니짜

VII. 무역관 안내

1. 오시는 길

□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Office B100, 36 Dragon Tsankov Boulevard, Interpred 1057, Sofia, Bulgaria
- 연락처 : (대표전화) +359-2-969-5030/ (대표메일) mp920@kotra.or.kr

□ 공항-무역관 이동 안내

- 지하철로 이동 시
 - 공항 도착 터미널 출구를 나와 좌측으로 이동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역(Sofia Airport/4호선 종점) 위치, 해당 역에서 Obelya 방면 지하철 탑승
 - 탑승 후 9 정거장 후인 줄리오큐리(Joliot Curie)역 하차, 인터프레드(Interpred) 출구로 나와 5분 가량 도보로 이동하여 인터프레드 빌딩으로 이동
 - 무역관은 인터프레드 B동 100호(한국 기준 2층/불가리아 기준 1층)에 위치
- 택시로 이동 시
 - 공항 도착 터미널 출구를 나와 우측으로 이동하면 도보 2분 거리에 OK택시 승강장이 있으며, 탑승 후 '인터프레드(Interpred)' 또는 '줄리오큐리(Joliot Cure)'역으로 이동할 것을 요청
 - 일부 사설 택시가 외국인 대상 부당요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현지에서 가장 규모가 큰 OK택시나 Yellow 택시 이용을 추천하며, Yellow 택시의 콜택시 앱이나 'Taxi me'와 같은 앱을 통한 예약 택시 이용도 권장함

해외출장 가이드



www.kotra.or.kr